

#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사사기 6:11-16, 마가복음 3:7-15

최정웅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라,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뭘 들고 들어오셨다. 고향에 다녀 오셨다고 한다. 그 고향에 노인정 마을회관이 있는데, 복음소식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어른들 여러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너무 뿌듯했다. 이병부 선교사님은 옛날에 합숙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해서 고향으로 갔다고 한다. 거기에서 전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토요일에야 올라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음을 안 전하면 못 건디는 분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하더라. 복음도 아닌데 복음적인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주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다. 마가복음 3장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다.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세계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구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거기에서도 가장 작은 기드온을 부르셨다. 그리고 불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시대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힘을 주시고,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신다. 구약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숫자가 아니다. 사람의 방법도 아니다. 무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능력과 증거를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으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응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한 적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미디안에 노예가 되고, 블레셋에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친 것이다. 요즘 보면 여당에도 야당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어네스트는 평생을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기다렸다. 나이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생을 기다린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왜 없을까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지나가면서 말했다. “어네스트 씨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군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그 사람, 그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환경도 여건도 숫자도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따라가는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들에게 세계 변화시킬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하신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천명의 주역, 소명과 사명의 주역들이 되자.

## 1.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현상이 너무 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병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들린 사람이 계속 찾아왔다. 이렇게 현상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

는데, 이것을 두고 주님이 주신 해답이 막3:13이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오늘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구절을 보고 ‘아,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하면 잘못 읽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보아야 한다.

(1) 누가 제자를 부르셨는가?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다.

(2) 둘째,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아무나 주님께 올 수 없다. 주님이 원해서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세계, 지역,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사43:1에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렘1:5에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이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침사량 가족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우셨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런 핑계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모자라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저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드온이 ‘나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참으로 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하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다만 ‘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되리라고’ 하셨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할 수도 없다.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괜찮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올—인 하지 않을 뿐이다. 거기에 올—인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내 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3) 우리를 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다. 먼저 함께 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힘이 생기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공부한다.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한다.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수 밖에 없다.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화장실 청소도 다 할 수 있다. 구원받고 나면 능력이 생긴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목표이고 계획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한다.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천명이다. 누구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바로 나를 부르셨구나.’ 50주년이 되었으면 이 스크린이 좀 밝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할 것이다. 이 강단은 백순덕 권사님이 하신 것이다. 이전 교회당의 강단도 권사님이 하셨다. 저 피아노는 나향님 권사님이 헌물하셨다. 어찌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관리부에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누가 기증했다, 누가 헌물했다 하고 반드시 기록하라. 그래야 후배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누워 있어서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 받고 나니까 건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고향에 찾아가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고향 교회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을 찾아뵙는다. 반드시 만나서, 고

향 땅에서 나 대신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인사를 드린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절대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라.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응답받는 참사랑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 2.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둘째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제자가 맞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는가?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오후예배는 온누리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다. 제목이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왜 불렀는가? 큰 소리 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민수기 3장, 6장을 다시 읽어 보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1)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라는 것이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 현장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행10:38에, 마귀에게 완전히 놀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막3:7-11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가 된 것이다.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극심한 갈급함에 빠져 있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고향 사람들, 부모 형제 이웃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어야겠다' 하는 것이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말해주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다. 현장을 보고,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황금어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었다. 그 결과 오는 것이 재앙이다. 우리 지역이 재앙지대가 되어 버리면 큰일 아닌가. 이번 주에 안산집회를 했는데, 안산 전체에 재앙이 왔음을 보고 왔다. 이게 세월호 사건 아닌가. 여기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캠프를 이번에 전도자들이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역의 재앙 막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번에 본부 요원들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캠프를 했다. 너무 잘 했다. 우리 지역이 재앙지대가 되기 전에, 황금어장 사각지대를 살려내도록,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야 되겠다. 형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라. 사건만 생기면 '저런 놈은 죽어야 한다' 하고 보는 것은 크리스천의 눈이 아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되었구나, 불쌍하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다.

(2) 현장을 봤으니까 이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복음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다. 뱀전 3:15의 말씀이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행1:1,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이미 끝내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라고 한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다. 행 1:3,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마음이 생긴다. 복음 없는 사람이 보이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돈이 아니다. 봉사가 아니다. 빵이 아니다. 이것을 보고 '권세'라고 한다. 그러면서 행1:8,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성령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것이 막3:13-15의 내용이다. 막3:14의 '함께'는 갈보리산의 내용이다. 구원의 내용이다. 막3:15의 '권세'는 감람산의 내용이다. 막3:14의 '전도'는 마가다락방의 내용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다.

(3)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현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막3:27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고 했다. 사탄의 세력을 꺾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제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면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하면 행19장의 일이 일어난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 보라는 것이다. 진짜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금방 알아본다. 마12:28의 말씀대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들인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란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 일을 하는 제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막3:31-35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자기 가족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이, 누가 '너희 형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가 보라'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제자들, 70인 요원들, 전도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가치다. 제자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대상이며, 가장 가치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주님의 형제자매가 된다.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한 사람은 현장의 멸망을 막고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시대를 살리는 가장 축복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사46:19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계2:1에는, 주님은 지금도 전도자들을 그 손에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 끝 날까지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시48:14에,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두려울 것이 어디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세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무디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것이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구두수선공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디가 하와이에 갔더니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었다. 미국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 7명이 골탕 먹이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 버렸다.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충만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여 선교사로 간 것이다. 19세기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그때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저 코리아에 2천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가난과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다. 누가 저들을 위해 갈 것인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온 것이다.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었던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나로 하여금 세상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헌신의 전도제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열두 제자와 70인을 부르신 주님이,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들려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시간과 남은 생애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헌신하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